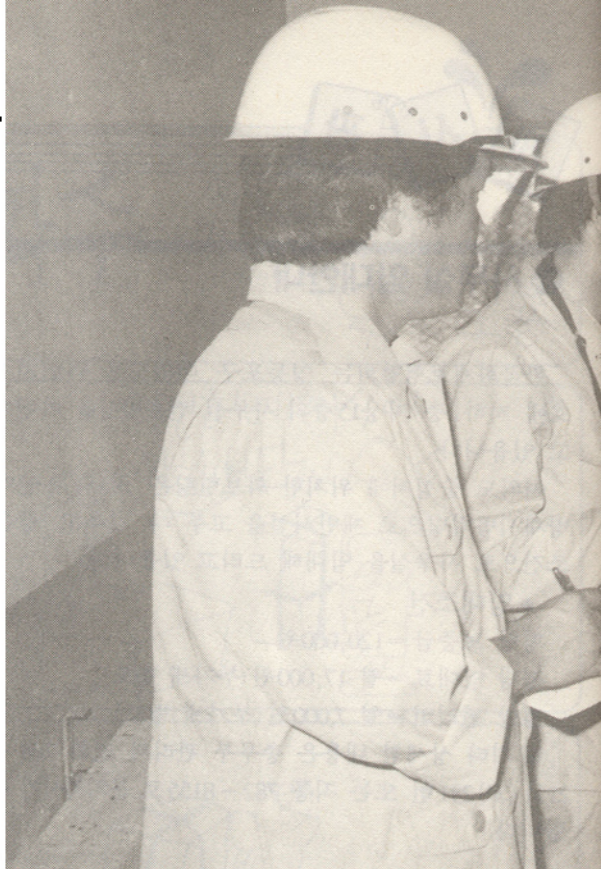


법규에 얽매인 점검을 초월해야 할때

김 대 곤
〈부산지부 점검과〉



인생에서 우리는 시작부터 종말까지 부단히 극복해야 할 문제들앞에 봉착하게된다. 우리는 이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보다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관찰할 수 있게되며 그 해결은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두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낳게되는 것이다. 극복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나의 현실을 언제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꾸준히 반성하는 것이다.

안전점검이 직접·간접으로 사회에 기여한바는 실로 대단하다. 이를테면, 소극적이던 국민들의 방재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의식구조의 개선에 한몫을 한 점이라든가,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법규를 활성화시켜 현실에 밀착되도록 유도한 점, 기업등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정착되도록 유도한 점, 방재시험소를 탄생시킨 점, 기타 화재와 보험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하는 위험조사 평가제도를 통하여 화재보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등,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예방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안전점검의 현실이 이러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다 발전된 안전점검을 위하여 일선에서 뛰고있는 한 점검인의 시각을 통해 안전점검의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반성과

비판의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1. 일과 인간관계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살고있다. 나의 존재 자체도 두사람의 관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다시말하면 결코 혼자 존재는 성립되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도 존재의 가치는 있고 의식하던 못하던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혼자 힘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것처럼 느끼지만 그것도 성장의 과정에서 타인(최초에는 부모)의 도움을 얻어 체득한 결과이다. 인생은 제한된 시간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야에 두루 깊이있는 경험은 할 수가 없고, 여러분야를 가볍게 경험하던지 아니면 한 두 분야에 걸쳐 깊이있는 경험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험이 많은 적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인간관계라 하고 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물이나 현상에 변화를 주는 행위를 일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곧 관계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으며, 내가 어느분야에서 무슨일을 하든지 그 일의 과정과 결과는 다른 사람과 어떠한 형



결하도록 유도하고 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게하는 것이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소방법, 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의 관계법규에서 화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 점검인들은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사등)을 취득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다.

화재안전점검에서 수반되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제 투자는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그 가치가 나타내게되는 음성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것이 여간 힘들지 않다. 화재를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으로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여 웬만한 시설에는 투자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의 유무에 따라서 그 피해는 엄청난 차이를 받게되며 피해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당해물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와 국가에 직접·간접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점검인들은 관계법규와 전문지식 그리고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계자를 설득, 화재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훌륭한 조건을 갖춘 협회의 안전점검은 필연적이며 현재 그 임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일은 인간관계의 매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관계법규나 전문지식, 경험이 어떠한 안전점검을 전체의 이익에 우선이 되도록 수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태로운 연속적인 관계를 맺게되고 그 관계가 연연히 이어져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순리를 따르면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련을 겪게된다.

이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일이 있고 이들 모두가 인간관계의 매체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역시 일의 하나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있는 것이다.

2. 안전점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몸에 이상이 생기면 곧 의사를 찾게되고 진찰과 처방을 통하여 다시 원상태로 몸을 회복한다. 이를 여러번 반복하다보면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되고 간단한 것은 자체처방하기도 하며 이상이 생기기전에 예방법을 터득하게 되는것이다. 그리고는 스스로 건강관리법을 체득하게 된다.

안전점검은 곧 의사의 일과 같은 것이다. 협회의 안전점검은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물 또는 업체의 관계자들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하여 자체문제를 스스로 해

3. 관계법규와 현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앞에는 항상 약속이 있다. 우선 한 개인을 보더라도 무엇을 하겠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곧 자신에 대한 약속인 것이다. 개인과 개인간이나, 집단에서나, 그이상의 사회에서도 약속은 항상 있다. 대부분의 약속은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지 않아도 통념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만 더러는 말이나 글로서 표현해 두어야하는 것들이 있다.

통상적으로 법(法)은 원활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문서로 공포한 사회의 약속이다. 법(法)의 본래 의미는 물(水)이 흘러감(去)을 나타내니 곧 진리요, 순리요, 자연이요, 삼재만상의 근본이치이다. 자

각을 통하여 이를 파악하기만 하면 사회의 약속(법)은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생존경쟁에 쫓기는 우리에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의 약속은 꼭 필요한 것이며 지키면 유익한 것이지 결코 생활의 제한이나 강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도구는 아닌 것이다.

법은 사람이 서로의 편의를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대나 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점차 보완내지는 개선이 있어야 한다. 세상사 모든 것을 문서로 약속할 수가 없는 까닭에 법은 아무리 충실하게 만들어도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하기는 어렵다. 우선 전체의 이익을 위한 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놓고 시행시에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관계법규는 더욱 더 그렇다. 시행전 입법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여러번의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찾아 다음 개정시에 보완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취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시행과정에서 관계자와 마찰을 일으켜 인간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규는 개정이 잦으면 신뢰성이 하락되므로 가능한 한 입안 또는 개정시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를 참여토록하여 주위의 여건변화가 없는 한 차후에는 개정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현행 안전점검의 관계법규중 주축을 이루는 소방법이나 건축법은 외국법을 번역내지는 모방하여 시작된 것으로 우리사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와 문화와 전통을 달리하며 생활양상이 다르고 지리적 여건이 틀리는 타국사회의 약속이었다는 것에서 처음부터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나마 경제성장이 활발해지고 고층건물과 대형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십수년전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탄생과 더불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이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되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

안전점검대상물건중 최근에 건축된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시정되어야 할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 건축주의 관계법규 이해부족에서 오는 소방시설등의 기피현상, 시공자들의 전문 지식부족, 화재예방보다는 사용편의에 중점을 두는 건축경향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십여년전 대형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만 해도 경제가 대형건물 그 자체에 만족해야 하는 나머지 외형에만 치중했지 소방시설등의 부대설비는 아직 뒷

전이였다. 차츰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건물의 대형화에 비례하여 화재 및 그 피해 역시 대형화되니 사람들의 의식이 서서히 바뀌어져 일부에서는 화재예방시설에 제법 많은 투자를 하고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관계법규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 형식적인 시설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 이것은 안전점검시 엄청난 투자를 한 여러시설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미비 물건중에는 개선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개선이 가능한데도 관계법규나 그 시행자, 건물 및 건물의 관계자들이 안고있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점검의 실태와 보완의 과제

앞에서 말했듯이 일은 인간관계의 매체이다. 일의 참된 가치는 인간관계의 원활함 정도에 따라서 나타난다. 원활한 인간관계는 원만히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고 원만히 주고받는 관계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적당한 조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일 그 자체보다 돈이나 명예, 권세등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앞선다. 이러한 욕구를 동기라 하는데 동기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 동기는 에너지를 불러 일으키는 활력소이기 때문에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지나친 동기는 일(인간관계)을 그르친다. 여기서 우리는 적당한 동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 적당한 동기가 바로 이기심과 이타심의 적당한 조화인 것이다.

이상을 간단히 줄여 달리 표현하면 일은 언제나 전체의 이익에 우선을 두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잘 이행하려면 지식이 풍부할수록 유리하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동기가 앞서버리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만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소신과 자부심이 부족할수록 행위에 대한 설득력은 약화된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 자부심, 소신이 부족할지라도 전체의 이익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 결과는 항상 유익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훌륭한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안전점검은 처음 몇년간 상당히 경직성을 띠었고 더러는 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관계법규를 활성화시키고 관계자의 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상당한 효

과를 나타내었다. 안전점검이 사회에 뿌리를 내려감에 따라 점검에도 약간씩 융통성이 가미되고 관계자와 대화가 활발해져 점검결과의 평가시 상호간의 의견교환으로 법과 현실사이의 문제점을 폭넓게 관찰하게 되면서 법규의 차원에서 시작된 점검이 점차 현실적인 차원으로 발돋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덕분에 관계자들의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방재에 관한 협회가 권위있는 전문기관임을 인식하게 되어 건물의 신축 또는 시설의 보완시 자문을 받기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협회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많으며 관계법규에 묶인 점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주위의 여건과 협회가 처해있는 직능상의 한계에서 기인되기도 하지만 점검인 각자의 자세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법적인 규제대상이라 하여 화재발생위험이 거의없는 특수한 건물에도 해당시설을 적용해야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의 용도상 이용가치가 거의없는 설비를 제외조항이 없다가하여 제외시키지 못하는 경우, 건물사용이나 생산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어쩔수 없이 지적을 해야하는 경우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법규의 미비점에서 기인되지만 법규의 보완 이전에 우리점검인 실무선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물론 법규는 꼭 준수되어야 하지만 법이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들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기서, 전체의 이익에 우선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입법취지를 충분히 파악해야 되겠고, 다음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의 효용가치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는 관계자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규시행자로서 최선을 다한 셈이 되는 것이다. 점검대상이 공장인 경우는 이문제가 더욱 절실하다. 공장의 점검시에 관계법규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많아진다. 공장은, 우선 생산공정 및 작업조건을 잘 이해해야 하고 생산공정에서 취급되는 물질의 특성을 파악한후 점검에 입해야 한다. 사실 공장의 점검은 관계분야의 기초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임하면 맹목적인 법규의 시행에 그치고 만다.

화재보험협회의 점검인은 방재분야에 관한 한 전문

인이다. 그리고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가 자기분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월은 모든것을 복잡다양하게 변화시킨다. 우리 점검인 개인의 자질은 과연 어디까지 와있는 것일까?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쌓아야될 것이 많아진다”는 옛 선인의 말씀을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5. 진로의 모색

현실은 언제나 우리들 앞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은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수 있는 힘이지 결코 다른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정신인 것이다.

안전점검대상 관계자들은 조금씩 능동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 방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규의 시행이 아니라 법을 바탕으로하는 현실적인 도움이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고 안전점검의 발전에도 꼭 필요한 것이요, 진정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법규에 얽매인 점검을 초월해야 할 때가 온것이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위험조사 평가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아가야 할것이다.

6. 맺는 말

세상사 모두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좋은것도 나쁜것도 없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정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것이다. 대상을 어느 각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사실을 천태만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위치를 어디에다 둘까? 앞에서 여러번 강조했듯이 우리가 사는것은 곧 관계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히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내가 잘살고 싶어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잘 살고 싶어한다. 바로 이것이다. 무슨일이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전체의 이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곧 대세이니 나를 대세의 흐름속에 두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펼친 필자의 견해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조명한 것이니 다수가 필자와 견해를 같이한다면 안전점검의 앞에는 보다 훌륭한 내일이 열릴 것이다. □